

손흥민, 챔스에선 터질까... 오늘 AC밀란과 16강 1차전

오후 5시 홈 앤드 어웨이... 2차전 다음달 9일 홈경기

밀란 상대로 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20호골 도전

최근 리그에서 침묵 중인 손흥민(31·토트넘)이 16강으로 재게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할까.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15일 오후 5시(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AC밀란(이탈리아)과 2022~2023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조별리그 D조 1위로 16강에 오른 토트넘은 홈 앤드 어웨이로 밀란과 붙어 8강 진출을 다툰다.

2차전은 다음 달 9일 홈 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토트넘은 공식전 3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12일 레스터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 경기에서 1-4로 역전패하며 주춤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복귀해 팀을 지휘했으나, 선제골을 이후 내

리 4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토트넘은 현재 승점 39점으로 리그 5위다.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41)와는 승점 2점 차다.

부상 악재도 겹쳤다. 주전 골키퍼이자 주장인 위고 요리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고 벤타쿠르는 수술대에 올랐다.

특히나 핵심 미드필더인 벤타쿠르는 무릎 인대가 파열돼 회복까지 최소 6~7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이 어렵다. 실상가상 이번 경기에도 다른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경교 누적으로 뛰지 못한다.

콘테 감독은 멀티 자원인 에릭 다이어의 포지션 변경 대신 올리버 스킵과 파페 사르를 기용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손흥민도 득점력이 들쭉날쭉하다. 지난달 말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4라운드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부활 조짐을 보였으나, 리그에선 지난달 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19라운드 이후 5경기째 골이 없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모든 대회를 포함한 공식전 8골 3도움이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총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번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득점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게 전부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19골 5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한 골만 더하면 통산 20골째를 달성하게 된다.

마침 상대인 밀란은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내주는 등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총 38경기에서 단 31골만을 내줬던 밀란은 벌써 30골을 실점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4골을 넣은 올리비에 지루를 비롯해 하파엘 레양 등 공격진이 날카



롭다. 여기에 무릎 부상을 딛고 스쿼드에 복귀한 베테랑 공격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출전 여부도 관심이다. 같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

에선 '우승 후보' 파리생제르맹(PSG 프랑스)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격돌한다. 햄스트링을 다쳤던 리오넬 메시와 허벅지 부상을 입었던 킬리안 음바페가 훈련에 복귀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금 1개·동 3개...열정상 수상

종합점수 2665점으로 최종 순위 16위 기록



광주장애인체육회 빙상 김진영. (사진=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가 전국장애인동계체전대회에서 '열정상'을 수상하며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를 수확해 종합점수 2665점으로 최종 순위 16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번 대회에서 종합점수가 지난해 1214점에서 1000점 이상 상승해 '열정상'을 수상했다.

광주는 이번대회 컬링 등 4개 종목 30명이 출전해 빙상에서 김진영이 여자 1000m 성인부에 출전해 1분59초4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진영은 제16회,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대회 여자 1000m 성인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또 윤좌현이 빙상 남자 성인부 500m와 1000m에서도 동메달 2개를 수확했으며 김세정이 여자 바이애슬론 중거리 7.5km 좌식 경기에서 34분55초20으로 3위를 차지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광주는 지리적 한계로 동계종목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값진 성과를 거둔 만큼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첫 대회 마친 이상혁 "세계랭킹 1위, 무겁지만 즐겁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은메달... "아쉽지만, 긍정적 신호"

올해 첫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이 세계랭킹 1위로 시즌을 시작한 것에 대해 "무겁지만, 즐겁고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나섰던 이상혁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12월 1일 미국으로 떠나 전지훈련을 시작한 이상혁은 유럽으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간 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 출전했다.

이상혁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금메달 획득은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4를 뛰어 일본의 아카마쓰 료이치(2m2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래도 입국장에 들어선 이상혁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그는 "새해 첫 대회라 더 잘하고 싶었는데 2위로 마무리했다. 아쉽지만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발목에 경미한 부상이 있었는데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 원래 기록을 경기를 뛰면서 느는 것이다. 2m24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을 마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또 하나의 경험을 쌓았다"고 전했던 이상혁은 "나의 최종 목표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잘 뛰는 것이다. 그전까지 여러가지를 많이 경험하고, 느껴보고 싶다"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경기를 뛰어보고 싶다. 그래서 대회를 마친 뒤 그런 글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항상 컨디션이 좋으라는 법은 없다. 지금 쌓고 있는 경험이 올림픽 때 지양분이 돼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즌을 출발하는 이상혁의 입장은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이상혁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지만, 지난해에는 도전자에 가까웠다.

올해에는 '세계랭킹 1위'라는 수식어를 달고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대회에서 2m34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수확한 이상혁은 2022 유진 실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m35로 은메달을 땀다. 이상혁은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한 월드 랭킹 포인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상혁은 "세계랭킹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즌을 시작한 것이 무거운 부분은 있지만, 그냥 즐겁고 있다"며 "세계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잊혀져야 한다.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주면 내가 또 잘 뛰면 되는 것이기에 일단 즐기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일단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을 끝으로 올해 실내 대회에 더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혁은 "올해는 세계실내선수권도 없어서 실내 대회는 더 뛰지 않을 예정이다. 실외 대회 출전 일정은 코치님과 상의 중이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호주 전지훈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지원, 최민정 닦은꼴 아웃코스 막판 스퍼트로 세계 평정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서 역전극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민정 연상

오는 3월 서울 세계선수권도 기대 만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핵심 박지원(27)이 세계 무대를 평정한 가운데 여자 대표팀 최민정(25)과 비슷한 아웃코스 막판 스퍼트를 구사해 눈길을 끈다.

박지원은 지난 1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25초3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지원은 역대 최초 '크리스탈 글로브' 수상자가 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올 시즌 월드컵 창설 25주년을 맞아 월드컵 1~6차 대회 전체 성적으로 남녀 종합 1위를 선정해 특별 트로피인 크리스탈 글로브를 수여하는데 박지원이 남자부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경기 중 압권은 박지원의 막판 역전극이었다. 박지원은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초반 하위권에 머물렀다. 3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가기 위해 속도를 올렸지만 다른 선수들의 견제를 뚫지 못했다. 그러자 박지원은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코스로 내달리며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했다. 박지원은 선두 다툼을 하던 칼 디움(캐나다)과 루카 스페첸하우저(이탈리아)를 한꺼번에 제치며 선두로 나



쇼트트랙 박지원. (사진=국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갈무리)

섰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장면은 최민정을 연상시켰다. 최민정은 지난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3~4바퀴를 남기고 단숨에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 1위를 차지하는 기술을 선보여 여러 차례 탄성을 자아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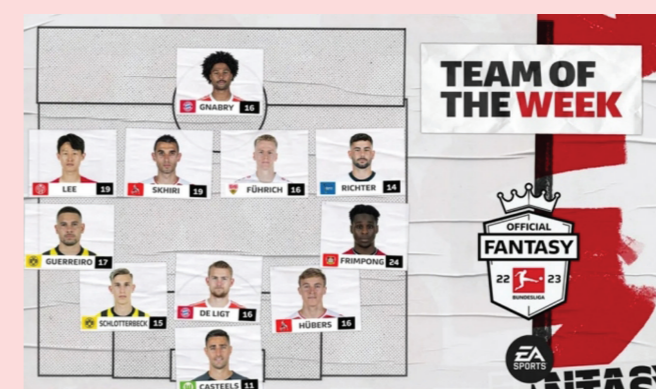
최민정은 2~3바퀴를 내리 아웃코스로 달리는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순간 가속력까지 갖췄다. 이를 통해 최민정은 경이로운 아웃코스 질주를 통해 선두 자리를 꿰찬다.

박지원이 최민정을 연상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활약 역시 기대된다.

박지원과 최민정이 활약할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3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세계선수권은 동계올림픽을 제외할 경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주관하는 쇼트트랙 대회 중 최고 권위의 행사다.

뉴스스

마인츠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 '이주의 팀' 선정



유럽 무대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멀티골을 터트린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31)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이주의 팀에 뽑혔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14일(한국시간)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20라운드 베

스트11을 발표하면서 이재성은 왼쪽 미드필더에 올랐다.

이재성은 지난 11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정규리그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21분과 후반 7분 연속골로 마인츠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2021년 7월 마인츠 유니폼을 입은 이재성은 유럽 프로축구 빅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멀티골에 성공했다.

또 최근 리그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재성은 이번 시즌 리그 20경기(선발 14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